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민원 가장 많아

“광주 일부 중학교 화장실에 화장지 없어 학생 불편 호소” 대책 촉구

권익위, 관련 민원 480건 분석 발표

대안학교>검정고시>대학입시 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안학교·검정고시·대입 등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 480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은 2016년까지 많지 않았으나 2017년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0%나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67.0% (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이 21.3% (102건)를 차지했다.

지원 민원 중에는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24.2% (116건)로 가장 많았다.

교육지원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내용은 ‘대안학교’에 대한 것(37.1%, 43건)으로 주로 입학 문의, 급식비·교과서 등 각종 지원 요청이었다. 검정고시 응시 기준 및 일정 변경, 응시료 면제 등 ‘검정고시’ 31.9% (37건), ‘대학입시 지원’ 관련 내용 14.7%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경진대회, 해외연수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발과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이 67.6% (23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건강검진 문의 등의 민원이 23.5% (8건)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대회나 행사 참가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영역을 개선하고, 대회 및 행사 공고 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업 중단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의와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내용도 23건이나 접수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용한 정보를 제때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으로는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의 고용 안정, 수당 인상 등 처우’ 관련 민원이 35.3% (36건)로 가장 많았다.

‘기관 운영을 위한 제도·법령 질의’ (33.3%, 34건),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 및 경력 인정 문의’ (18.6%, 19건) 등의 민원도 접수됐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정고시, 대학입학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나 행사의 참여

자격에 있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볼 수 있다.

뉴스1



사과 증 으뜸 부사 주렁주렁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삼순농원에서 부사 수확이 한창이다. 겨울에 먹는 사과로 유명한 부사는 맛이 좋고 저장성과 상품성이 뛰어나 사과 가운데 으뜸으로 구분된다.

순천시농민회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선언”

무효 주장하며 ‘논 갈아엎기’ 투쟁벌여



지난달 31일 순천시 농민회 농민들이 태풍 피해를 입은 연향동의 한 논에서 정부의 WTO개도국 포기 무효, 태풍 피해 배보상, 재해보험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2대의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고 있다.

순천시농민회원과 시민사회단체, 순천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순천시 연향동의 한 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제인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농민과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 당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올해 3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순천시 지역 1500ha의 논에서 벼의 흑수, 백수 피해와 쓰러짐, 수

발아 등으로 급격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했다”며 “순천시는 태풍 피해 배 보상에 적극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며 재해 보험의 현실화와 농민수당의 확대 지금도 요구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는 재해 보험 피해 산정시 단순 무게 중심으로 산정하고 수확불능 피해율을 65%밖에 산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해보험 피해율 100%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함께 만든 농민수당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농민수당을 누더기로 만든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회원들은 트랙터 2대를 동원해 순천시농민회 회원인 김모씨의 논 2600㎡(800평)를 갈아엎었다.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31일 광주의 일부 중학교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에 따르면 광주의 A중학교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중학교는 학생들이 화장지를 통째로 넣어 번기가 막히거나 잘못된 장난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화장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교는 각 학년 연구실(교무실)에 화장지를 비치, 각 반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화장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A중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화장지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비치해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처럼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의 질과 학생인권을 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슈 판결

‘암사역 흥기난동’ 10대, 2심서 실형 선고...“1심 양형 잘못”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흥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1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잘못된 것 같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는 현재 절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한씨는 지난 1월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모씨(20)에게 흥기를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를 전인 1월11일 박씨와 함께 암사역 일대의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거나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는다.

한씨는 경찰 조사 후 석방된 박씨가 경찰에서 자신과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싸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싸움은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한씨 측은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네요... 자폐치료장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장애발견, 자폐치료 중인 민척군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인원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